



편집인 칼럼

# 침착한 사회를 위하여

■ 최운홍 /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폭설 또한 대단했습니다. 연일 최저기온이 경신되는 근래에 보기도문 한파였습니다.

73년 12월 2일 육군 소위 임관 후 최전방에 배속된 저는 처음으로 최전방 고지인 향로봉(香爐峰·1296m·강원도 인제군·고성군)에 배치되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겨울생활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위는 이에 버금가는 추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러한 맹추위속에 대망의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달력이 바뀌면 그만큼 새로운 관계가 열리리라 부푼꿈을 꾸어보기도 하고 여러차례의 허한 다짐들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庚이라는 한자가 '희다'라는 뜻이 있어 60갑자중 유일하게 한번인 흰 호랑이 즉, 백호(白虎)의 기운이 깃든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소망을 담아봅니다.

지난호에 저는 村本昇(무라모토 노보루)氏가 쓴 「농약의 빛과 그림자」란 책을 본지에 소개하면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즈음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설명해주는 「Risk Table(침착한 사회를 위한 환경저널리스트의 제안)」이라는 좋은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는 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의의 대가로 대기오염을 감수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없애는게 중요하니 이 세상에서 자동차를 몰아내 버리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제초제를 쓸수 없다면 농업인들은 퇴약별에 주 그리고 앉아 잡풀을 뽑아야 하는데 농약이 가져다 주는 베니핏(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러면서 침착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환경·건강 등 각 분야별로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 위험에 대한 사회와 정부당국의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위험(Risk)보도의 네가지 경향(확률무관심의 경향, 편익무시의 경향, 어두운면에 집착하는 경향, 자연을 선호하는 경향)도 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야스이 이타루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든 리스크테이블에 보면 인구 10만명당 한해 사망자수가 암 250, 비만 140, 자살 24, 목욕중사망 2.6, 커피 0.2, 자연재해 0.1, 수돗물과 식품 0.12, 식중독 0.004 그리고 잔류농약과 낙뢰는 0.002로 후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환경화학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나아가 정책당국이 리스크와 베니핏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침착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사회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로 뚜벅뚜벅 발길을 옮겨 간다면 반드시 내실있고 축복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Y

